
2021년 제1호 방송심의보고서

2021. 1. 1. ~ 1. 7.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1. 1. 1.	시청률	0.050

【총 평】

톡톡 사이다경제는 2020년 한국 경제를 정리하는 시간 ‘아듀 2020, 국내 경제 주요 이슈 BEST 7’과 알뜰신잡 ‘심근경색·뇌졸중 예방법’을 방송했다. ‘아듀 2020, 국내 경제 주요 이슈 BEST 7’은 국내 경제를 살펴보고 주요 핵심 이슈를 선정했는데 코로나19, K-방역, 디지털 전환 가속화, 증시 원군 ‘동학개미’, 부동산 안정화,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본궤도, 한국판뉴딜 등이었다.

【구성 및 내용】

2020년 경제적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2021년으로 이어져 갈 부분까지 짚어보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 가장 큰 이슈였고 많은 경제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한 해였다. 특히, 코로나19와 함께 맞서 싸우며 시작된 2020년은 모두가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 슬기롭게 대처했음을 확인하고 재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전체적인 구성은 코로나19부터 K방역, 디지털 전환을 거쳐,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소부장 자립화, 한국판 뉴딜까지 작년 한 해 굵직굵직한 경제적 사안들을 정리했다.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국가적 봉쇄없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K-방역이 이루어졌고, 발 빠르게 대처하며 방역시스템을 마련했다. 특히 K-방역은 진단시약을 110여 개국에 수출하고 방역과 관련한 18가지가 국제 표준으로 지정될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증시 원군, 동학개미 활약도 뛰어났다. 코스피 38.6% 상승으로 세계 주식시장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것은 64조원을 순매수한 일반 투자자들의 덕분이지만 신용거래 증가로 인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코로나19 국면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 분야가 가속화 되었고 언택트 부분과 디지털 문화가 급격히 스며드는 전환기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반도체와 정보통신 기술이 슈퍼 사이클을 일으키며 우리나라는 OECD 첫 디지털정부 평가 종합 1위, 블룸버그 디지털 전환국가 1위를 기록해 우리 정부의 위치를 재인식 시켰다.

부동산 시장은 용광로 시장으로 정부의 규제 정책이 다양하게 시도했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없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실제로 전국이 규제지역으로 거의 묶여 버린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 바람을 근절시키는 강력한 정책 추진이 절실할 시점으로 부동산 정책 변화를 체감하는 한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부장 자립화는 기술 종속국가에서 독립국가로 성장하며, 기술 자립 경제로 탈바꿈했다. 반도체 핵심소재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의 성과가 나타났다.

알뜰신잡은 겨울철 위험 질병인 ‘심근경색과 뇌졸중 예방법’에 대해 다뤄 시청자들에게 생활건강 수칙을 전달했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증상 차이, 응급 조치법,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증상과 예방법을 소개해 겨울철 위험 질병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프로그램	길 따라 인문학		
방송일자	2021. 1. 2.	시청률	0.063

【총 평】

‘역사와 예술이 넘실대는 동해’를 소재로 새해 일출과 동해바다를 보러가려다 코로나로 발이 묶인 시청자들에게 동해바다 풍광을 보여주고 그 속에 담긴 역사와 문화, 예술을 집중 조명했다. 동해안 해파랑길을 따라 강릉·울진·포항을 이어가며 동해바다와 역사, 예술, 맛 기행을 보여주었다.

강릉에서는 허균 남매의 문학정신을 조명하고, 울진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지킨 수군의 유적을 살펴본 뒤 포항에서는 일본의 침탈 현장을 살펴본 구성이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흑백 영상으로 재연된 허균의 개혁정신, 고뇌하는 삶을 리얼하게 표현해 시각적 몰입도를 이끌었다.

【구성 및 내용】

동해지역의 도시인 강릉, 울진, 포항의 역사와 문학을 둘러보았다. 강릉에서는 허균일가를 비롯하여 오죽헌을 중심으로 신사임당, 경포대, 울진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한 수토사, 포항에서는 구룡포 등을 소개했다.

허난설헌, 허균 등, 허균일가의 뛰어난 문장과 탁월한 예술감각은 아름다운 강릉의 자연 환경이 예술적인 감흥을 불러일으킨 것이 한몫했을 것이다. 더불어 강릉의 사회적 교육적 분위기들도 기여를 했을 것이다. 허난설헌은 문학적 소양을 타고 태어났고 그녀의 시는 사후에서 허균에 의해 중국, 일본에까지 알려지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사임당은 울곡이이라는 최고의 학자를 배출했으며, 스스로도 그림으로도 널리 알려졌고 유명했다.

경포대는 조선의 문장가, 송강 정철이 관동 8경의 하나로 꼽은 곳이다. 강릉에서 태어난 김동명 시인은 경포호를 소재로 하여 ‘내 마음은’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거울처럼 맑은 경포호와 무척 어울린다. 강릉초당두부는 조선시대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 음식으로 청정해수를 천연응고제로 이용해 두부를 만들고 있다. 신경림 시인이 후포항에서 동해를 바라보며 쓴 ‘동해바다 후포에서’라는 시는 늘 같은 바다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며 위로를 전한다고 썼다.

울진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도시이다. 울릉도와 가장 가까운 포구인 구산항의 마을에는 수토사라고 하는 울릉도와 독도를 지키고 관리했던 수군이 있었다. 이들 수토사들은 울진 대풍헌에 머무르며 울릉도와 독도를 오갔다.

호미곶은 호랑이 꼬리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인 호미곶은 동해안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구룡포의 일본 침탈의 현장인 일본인 가옥거리에는 당시 많은 일본인들이 거주했고 당시 최대 번화가이기도 했다. 아직까지 일본식 가옥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과메기는 경상도 사투리로 청어를 말려서 먹는 음식으로 옛날에는 가난한 선비들이 과메기를 먹고 살을 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1. 1. 2	시청률	0.051

【총 평】

신년특집 1부 '2021년 기대주는 나야 나! 한반도'는 2021년 한반도 정세 전망과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현명한 방안을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다. 미국 대선 이후 2021년 남북미 관계 변화 가능성이 높아진 것 못지않게 한반도 관심도도 높아진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예측해 보았다. 전체적으로 남북관계 회복과 남북정상회담 재개를 희망하는 마음이 잘 담겨 있는 구성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우리 정부의 역할이 북미관계와 미중 관계에 미칠 영향을 제시하였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권을 놓지 않고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및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이 시험당하는 상황이 많이 올 수 있음을 예측하였다.

전체적인 구성은 '미국 바이든 당선인의 북한에 대한 시각과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흙수저 출신인 바이든 당선인의 한반도 정책 스타일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케미', '미중 패권 다툼 속 한반도 정세 변화 예측'을 다루었다.

【구성 및 내용】

'미국 바이든 당선인의 북한에 대한 시각과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서는 취임을 앞둔 바이든 당선인의 대북정책 방향과 김정은 대미정책, 북한 청년들의 미국을 보는 시각 변화, 북한의 2021 도발 가능성, 북미정상회담위한 북미 책임자들 면모 분석 등 북미 회담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후,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신중과 부담이 가중되어 올해 북미정상회담은 난항이 예상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정책 방향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가능성도 크다.

'흙수저 출신인 바이든 당선인의 한반도 정책 스타일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케미'에서는 바이든과 트럼프를 비교해가면서 향후 우리나라와의 외교 관계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예상했다. 오바마 정부 때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 당선인의 중국 견제, 남북미 신뢰 회복을 위한 방향, 우리 정부의 맞춤형 중재자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특히, 남북미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남한의 중재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북한의 행동에 따라 남북미 관계가 결정될 수 있다.

'미중 패권다툼 속 한반도 정세 변화 예측'은 중국의 입장과 역할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도 살펴보았다. 북핵 압박 속에서 미중 패권다툼, 우리가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할 2021년, 북한의 전략적 인내를 돕는 완충재 역할론의 중국, 한반도 평화 구축에 필요한 우리의 안목과 역할 등을 소개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미중을 놓고 고민하게 되는 상황으로 우리 정부의 평화 외교 정책 방향은 미중 사이에서 소통하는 균형 잡힌 외교로 나가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각인시켜 할 우리 정부는 맞춤형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 소리		
방송일자	2021. 1. 2	시청률	0.146

【총 평】

강원도 강릉 속 바다 풍경과 소리를 담아낸 '강릉, 겨울바다'는 코로나19로 새해 일출 여행을 못하는 시청자들을 대신한 소재 선정, 새해를 보듬는 풍경소리, 신축년 희망을 담아낸 기획 구성이 시의 적절했다.

동해 바다가 주는 깊은 울림과 60년 만에 새로 공개된 정동 심곡 바다부채길, 아름다운 동해바다 비경, 신축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느껴진 강릉 바닷가 소리, 커피 경력 33년 차 1세대 바리스타가 들려주는 커피콩 볶는 소리, 소박한 새해 소망이 담긴 소시민들의 목소리 등이 매끄럽게 엮어졌다. 한걸음에 내딛을 정도로 달린 동해 기차, 그리고 한 겨울 속에서 만난 동해 바닷가 풍경소리를 찬찬히 담아냈지만 역동적이었고,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음과 동시에 시청자들에게 위로를 준 방송이었다.

【구성 및 내용】

강원도 강릉의 바닷가 풍경과 오랫동안 사람들의 발길을 제한했던 해변가, 바닷가 소나무 길, 그리고 30년 넘게 커피콩을 볶고 커피를 만들어 온 사람의 일상을 들여다봤는데, 겨울 바다의 정취와 함께 파도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새벽 4시부터 삶이 시작되는 주문진 항에서 만난 못생긴 고기 '도치'와 대구, 도루묵, 그리고 사람들의 삶, 동해바다에서 가장 큰 수산시장이 있는 주문진항의 풍경 속에서 바다가 만들어내는 삶의 소리를 들어보았다. 주문진항의 각종 생선 경매 풍경을 담아내고 경매가 끝난 뒤 이어지는 그물 손질 작업도 감성적으로 잘 그려냈다. 주문진항에서 그물 손질하는 모습을 노동보다는 그림의 한 장면처럼 담아내면서 내레이션도 '얼어붙은 항구의 봄을 상상해본다'로 아름답게 마무리가 잘 되었다.

강릉 연곡해변의 아름다운 솔밭길 풍경을 잘 묘사했고 방문객의 인터뷰를 통해 이 길을 걷는 기분과 소리도 잘 표현해냈다. 특히 보통 인터뷰와 달리 인생에 대한 깊이가 묻어나는 내용이 많아 들기 좋았다.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은 오랫동안 해안경계 때문에 사람들의 통행을 막았던 바닷길로 최근에야 여행객들에게 공개된 산책길이다. 정동 심곡 바다부채길의 유례를 들어보고 이곳을 찾은 미혼의 여성 방문객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불안한 청춘들의 심리가 그대로 반영되어 노부부의 인터뷰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강릉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바다와 커피인데 커피거리에 자리한 대한민국 커피 1세대 커피 장인이 등장해 커피 로스팅과정과 로스팅 소리를 섬세하게 잘 담아냈다. 커피 소리와 함께 이것을 들으며 커피가 어느 정도 로스팅 되었고 어떤 맛을 낼지 감을 잡는 장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올해는 유명 일출 관광지도 코로나19로 통제가 되었기 때문에 일출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랜선으로 일출을 소개해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

프로그램	밥보다 법		
방송일자	2021. 1. 3.	시청률	0.007

【총 평】

연말연시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배달 오토바이의 교통사고,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 등 우리 생활에서 밀접하게 일어날 수 있는 소소한 분쟁을 다룬 ‘연말 교통사고 분쟁-이럴 땐 어떻게?’를 방송했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겨울철을 맞아 오토바이 교통사고부터 전동킥에 의한 사고, 뺑소니의 기준까지 다양한 교통사고 사례들을 통해 교통사고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 주문이 많아지면서 오토바이 배달 사고도 급증하고 있어 보험이나 책임소재 문제를 따져봐 의미 있었다. 또, 최근 전동 킥보드 역시 법안이 재개정된 상황이라 더욱 관심이 가는 부분이기도 했다. ‘무엇이든 물어볼 법’에서는 인터넷 강의 환불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 시기적으로 민감한 사연을 채택해 상담을 진행했다.

【구성 및 내용】

다양한 교통사고중에서 배달 오토바이의 사람과의 충돌로 인한 사고와 전동 킥보드와 차량사고 등 사고의 유형이 명확하지 않는 상황이거나 소소한 일상에서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사례에 대한 해결 방법을 다루었다.

배달 오토바이에 의한 교통사고에 대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대한 비교와 함께 형사처벌도 예상하면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따져보았다. 또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낸 사고이니만큼 업주의 책임에 대해서도 따져보면서 배달원 교통사고 양벌 규정을 정리해주었다. 최근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큰 교통사고로 발생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전동 킥보드 자격 면허도 없이 교통질서의 혼란을 주고 있는 부분을 짚어주었다.

특히, 운전자 보험 중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을 때 배상책임을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한다는 제도에 대해 알려주었다. 이 밖에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둔 차를 돕기 위해 자신의 차를 세워두고 도와주는 상황에서 삼각대 등을 설치하지 않아 뒤에 오는 차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의 책임도 면할 수 없음을 지적해 주었다. 그러나 의사상자 지원 제도라는 법적 구체절차를 통해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려고 구조를 하다가 죽거나 다치면 지원하는 제도를 알려주었다.

즉석 상담은 불법정차된 차를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와 피해자가 제대로 후속 처리를 요구하지 않아 뺑소니로 몰린 경우 등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상황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뺑소니 사고는 사고의 대상이 어린이인지 어른인지 여부와 사고의 정도가 심각한지 외관상 아무 이상도 없고 별 이상이 없을 경우인지를 분간하여 뺑소니 사고 유무를 결정짓는 기준을 제시해 주었다. 무엇이든 물어볼 법은 인터넷 강의 위약금 문제와 환불 규정에 대해 다루었다.

프로그램	슬기로운 취준생활 일자리센터		
방송일자	2021. 1. 3.	시청률	0.000

【총 평】

‘자율주행 자동차를 학습시킨다, AI데이터 검수자’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관심도가 AI데이터를 검수하는 직업에 대해 소개했다. AI 데이터 검수자는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이미지에 대한 가공 및 검수작업을 진행한다. AI는 산업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뉴딜정책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끄는 직업분야였다.

실업계 고교 졸업자와 청년층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정보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이 돋보였다. 이 밖에 먼저 취업한 선배로부터 궁금증을 풀어주고 취업 합격정보를 알려주는 ‘달려라 신입 사원’과 ‘나의 취업합격 비법’이 흡인력을 높였다.

【구성 및 내용】

AI 데이터 관련 분야는 획기적인 발전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고, 진취적인 젊은이들이 진출하길 원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AI데이터 검수자 직업의 세계와 복지를 비롯해 구체적 업무, 전망을 해당기업 인사팀장과 취업선배를 통해 살펴보고 합격 비법을 이끌어내 취준생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테스트 워크스’는 인공지능 데이터, 자동화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 기업으로서 업계 유일의 인공지능 데이터 수집 회사로 향후 채용계획도 이미지 데이터는 상시채용, 음성데이터, 데이터 검수자 등의 분야도 채용을 계속하고 있다. 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실습과 연계해서 직원을 채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한 장애인을 50%이상 채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AI 데이터 검수자의 하루를 살펴보면 AI를 학습시키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이미지를 분류 및 검수하는 일을 수행하는데 인공지능이 공부할 수 있는 일종의 교과서를 만드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취업 합격 비법으로는 첫째, 나 자신을 추천하라. 본인을 어필하여 본인이 원하는 곳에 들어가고자 하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장점을 어필해야 상대방이 알아줄 수 있다. 둘째, 공모전에 도전하라. 디자인 관련 공모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필요한 디자인 툴을 습득함과 동시에 수상을 통해 자신감도 획득할 수 있다. 셋째, 마음과 행동을 빠르게.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화상 모의면접에서는 AI 숫자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한 학생과 AI 사물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한 학생 등 대진디자인고등학교의 학생 2명과 화상면접을 진행했다.

또, 특성화고 학생들이 습득한 기술이 병역으로 인해 단절되지 않도록 군대기술특기병 복무제도인 ‘기특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교육부차관과 병무청장 인터뷰로 소개한 부분은 유익한 정보제공과 함께 정책홍보 역할이 빛을 발했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1. 1. 3.	시청률	0.063

【총 평】

‘아버지의 사랑이 깃든 목조주택’은 귀촌 2년차인 40대 후반 아빠가 경기도 퇴촌면에 직접 목조 전원주택을 짓고 가족들과 행복을 즐기는 일상을 그려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우리 집을 통해 아파트값 상승과 전세난 월세난으로 내집마련이 어려워진 시기에 전원주택을 짓고 소확행을 즐기는 가족의 일상을 그려냈다.

특히 ‘당신에게 집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던지고 ‘가족을 위해 선택한 집이 행복을 안겨준다’는 해답을 내놓는 구성이 돋보였다. 집은 투기대상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누리는 보금자리여야한다는 메시지가 잘 표현돼 기획의도를 살렸다.

【구성 및 내용】

전원주택에서 일궈가는 새로운 삶이란 측면에서 한해가 시작되는 시점에 정서적으로 끌리는 소재였고, 가족에 대한 배려가 느껴지는 공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느낌 있게 그려냈다. 아파트값의 신고가가 상승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재산가치를 높이는 하우스(house)가 아니라 행복이 샘솟는 홈(home)으로서의 가치지향을 보여준 기획이 뛰어났다. 특히, 집을 사는(buy)대상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어야 한다는 주제가 설득력을 높였다.

집이라는 공간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잘 느낄 수 있었고 특히 아버지의 밝고 긍정적인 모습과 아무런 갈등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가족의 모습을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어 좋았다. 귀촌을 결심할 때는 돈이나 물질적인 것들을 포기해야하기 때문에 생각을 정리하고 실행에 옮겨야한다는 이야기는 공감대를 얻었다.

“자연의 변화를 바라보며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 “귀촌하려면 돈 축적은 포기하고 그 대신 자연을 즐기고 자녀 성장을 바라볼 수 있는 더 큰 가치에 방점을 뒀다” 등 귀촌과 전원주택 건축 동기, 귀촌의 장점, 생활철학 등이 제대로 표현됐다.

또한, 직접 설계하고 지은 목조주택은 창을 많이 만들어 시야가 확 트인 공간, 다용도로 활용도를 높인 설계가 돋보였다. 연면적은 30평이지만 현관의 이미지를 시원하게 보이게끔 공간 투자를 많이 했다. 더불어 폴딩도어를 적용하여 집을 넓게, 그리고 가변성 있게 활용할 수 있게끔 했다. 그리고 커다란 창문을 많이 적용해서 경관을 많이 확보했다. 이 밖에 식사공간, 오락실 노래방, 영화감상실로 활용하는 다이닝룸, 아이들의 공간, 만화방, 공부방, 놀이공간, 침실로 이용하는 2층 다락방 등이 있었다.

취미를 직업으로, 가정의 행복, 자녀의 성장 등 귀촌 철학을 소개해 귀촌과 전원주택 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에게 새해 희망과 미래 설계 정보를 제공했다. 가족끼리 크리스마스 파티, 가족들의 실내 운동, 자녀에게 목공을 가르치는 아빠의 모습 등 단란한 가족의 일상에서 가족의 행복감이 느껴졌다.